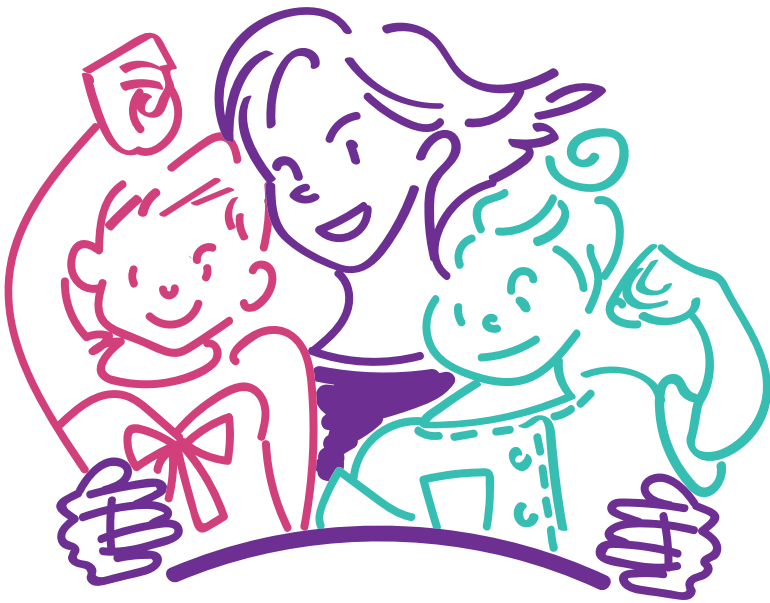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



2020 대중매체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2020년 상반기 EBS 방영
유·아동 대상 스튜디오 프로그램

2020 대중매체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2020년 상반기 EBS 방영 유아동 대상 스튜디오 프로그램

목차

I. 들어가며	5
II. 분석 대상 및 방법	6
1. 분석대상의 선정	6
2. 분석 방법	7
III. 분석 결과	8
1. 등장인물에 대한 양적 내용 분석	8
2.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	10
IV. 나가며	49

I. 들어가며

양육자들을 위한 교육 서적을 보면 아이들의 영상시청을 제한하라는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영유아 대상 영상 프로그램이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TV, Youtube,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적절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에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방송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교육방송의 설립 목적과 위상, 그리고 국가 기간 방송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양육자들이 신뢰할만한 콘텐츠로 기대할만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교육의 일환으로 EBS 콘텐츠의 활용도 및 의존도가 높아지는 요즘, EBS 제공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EB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비판적 사유 능력 양성이라는 교육방송 본연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EBS 영유아 대상 스튜디오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은 EBS 1 채널에서 키즈 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 중 애니메이션과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BS에 키즈 시간대(아침 7시~9시, 오후 2시~7시) 중 매주 월~목요일까지 4시~5시, 6시~7시는 자체 제작한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시간대에도 편성된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에 15분~20분 정도의 짧은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들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 관련 내용을 겸하고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하겠다. 본 보고서는 아이들의 일상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영유아 대상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두드러지는가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1) 2013년 영유아 생활시간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2배로 뛰었다.(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2013; 육아정책연구소, 2018-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II.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의 선정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EBS 홈페이지에 나온 편성표를 참고하여 상반기에 방영된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표 2-1 > 질적 분석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분석회차수	프로그램명	분석회차수
딩동댕 유치원	3	뭐든지 뮤직박스	5
딩동댕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5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5
또깨비 가족	5	생방송 보니하니	5
모여라 딩동댕	4	해요해요	5

< 표 2-2 > 양적 분석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분석회차수	방영일
방귀대장 뽕뽕이	13	7월 1일 ~ 7월 29일
뭐든지 뮤직박스	10	7월 2일 ~ 7월 29일
햇도그랑 만들어볼까요?	6	7월 6일 ~ 7월 21일
딩동댕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0	3월 2일 ~ 3월 27일
또깨비 가족	8	7월 2일 ~ 7월 24일
자이언트 펭 TV	14	7월 1일 ~ 7월 30일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9	8월 10일 ~ 9월 9일
생방송 보니하니	23	7월 1일 ~ 7월 31일
계	113	

2. 분석 방법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스토리로 시작과 완결이 분명한 것과 달리, 스튜디오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각 프로그램별 코너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양적인 분석을 위한 유목화를 통해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아이들 프로그램에 등장인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 별 등장인물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의 경우, EBS1에서 방영중인 8개의 프로그램(<표1> 참조)을 대상으로 등장인물의 유형(인간, 생물, 기타)과 성별(남성, 여성, 알 수 없음), 그리고 캐릭터별 위치(프로그램 진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캐릭터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등장인물은 8월 현재 EBS에서 검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가장 최근 vod부터 약 1달간 총 113회의 분량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 분석은 각 프로그램 주요 코너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등장인물의 구성, 옷차림, 외모, 대사,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 등)를 비롯하여 영유아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²⁾

2)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과 달리 그 포맷이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내용에 대한 서술이 일정하지 않다.

III. 분석결과

1. 등장인물에 대한 양적 내용 분석

1) 등장인물의 성별 및 인물의 종류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인간 캐릭터가 생물이나 기계 캐릭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등장인물의 성비를 보면, 스튜디오 프로그램 중 남성 인물은 전체의 약 48.6%를 차지해 절반을 못 미쳤고, 여성인물은 41.7%였다. 특히 극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인간 캐릭터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계 캐릭터의 경우, 모두 남성이었다. 기계 캐릭터의 비중이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기술적인 것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편견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 표 3-1 > 성별에 따른 인물의 종류

	성별	빈도	인물종류			전체
			인간	생물	기계	
남성	빈도	358	132	5	495	
	퍼센트	54.0%	37.7%	100.0%	48.6%	
	여성	빈도	305	119	0	424
		퍼센트	46.0%	34.0%	0.0%	41.7%
	모름	빈도	0	99	0	99
		퍼센트	0.0%	28.3%	0.0%	9.7%
전체	빈도	663	350	5	1018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스튜디오 프로그램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메인진행자와 보조진행자 외에도, 학습적인 부분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조언을 주는 인물(선생님/멘토), 초대 손님, 그 외에 단역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캐릭터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3-2>에서 알 수 있듯이 양적 내용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캐릭터의 위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게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역할에서 남성들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1차적으로는 전체 인물의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멘토 캐릭터에서의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이 메인진행을 담당하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메인 진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성들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보조진행자와 게스트 또는 1회성 등장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등장인물의 수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비중상의 성비 불균형 역시 향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 표 3-2 >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캐릭터 위치

	성별	빈도	캐릭터위치					전체
			선생님 / 멘토	메인진행	보조진행	게스트	단역	
남성	빈도	86	78	205	88	38	495	
	성별 중%	17.4%	15.8%	41.4%	17.8%	7.7%	100.0%	
	위치 중%	74.1%	41.9%	44.7%	46.3%	56.7%	48.6%	
여성	빈도	30	69	204	92	29	424	
	성별 중%	7.1%	16.3%	48.1%	21.7%	6.8%	100.0%	
	위치 중%	25.9%	37.1%	44.4%	48.4%	43.3%	41.7%	
모름	빈도	0	39	50	10	0	99	
	성별 중%	0.0%	39.4%	50.5%	10.1%	0.0%	100.0%	
	위치 중%	0.0%	21.0%	10.9%	5.3%	0.0%	9.7%	
전체	빈도	116	186	459	190	67	1018	
	성별 중%	11.4%	18.3%	45.1%	18.7%	6.6%	100.0%	
	위치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1) 덩동댕 유치원

(1) 프로그램 소개

1982년부터 시작된 덩동댕 유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루는 누리교육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덩동댕 유치원은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시청각 구성을 통해 매일 아침 유아 시청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를 제공한다고 한다. 매 회 각기 다른 코너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요일에는 이야기 숲 ‘만약에’, 화요일은 ‘또또리가 간다’, 수요일은 어린이 드라마 ‘괜찮아 괜찮아’가 방영되었다.

(2)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주요 등장인물은 솔이(여성)와 솔이 가족 그리고 4명의 요정이다. 솔이가 여자아이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4명의 요정의 경우, 탈을 쓰고 등장하면서 성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이나, 요정들의 색상이나 소품, 그리고 성격에 비춰볼 때, 젠더 스테레오 타입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표3-3> 참조). 프로그램의 화자인 솔이 그리고 솔이 가족 역시 가부장제 가족의 성별 역할 분리에 부응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먼저 요정들의 경우,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3 > 덩동댕 유치원 4명의 요정의 특성

인물	색	성별	꾸밈도구	성격
푸푸리	파랑색	남성	말풍선	리더십 있음, 중재 잘함
만드리	보라색	여성	하트	잘난척함, 감정적
또또리	노랑색	알수 없음	도토리	부끄러움이 많음, 소심함
떼구리	회색	남성	구름	화난 얼굴, 감정적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인 만드리의 체구는 눈에 띄 정도로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작다. 또한 5월 5일 방영분에서 만드리가 홀로 등장하는 장면의 경우, 분홍색 배경과 꽃들로 가득찬 방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여성다움의 고정관념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 날 만드리의 대사는 성 편향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는데(“만드리를 닮은 예쁜 꽃”, “내가 누구야 만드리 험번이지”), 만드리가 잘하는 만듦기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외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 그림 3-1 > 네 명의 요정 중 가장 작은 만드리(오른쪽 두 번째)

솔이 가족 역시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역할분리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돌봄 노동 및 가사 노동은 엄마가 담당하고(5월 4일, 5월 6일 방영분), 아빠의 경우 엄마에게 “왜 안 깨웠냐”고 꾸짖으며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은 남성생계부양자-여성 가사노동자라는 틀을 반복하고 있다. 주인공 솔이 역시 화장이 다소 과한 편이었다(눈썹, 속눈썹, 볼터치, 입술, 피부색이 과하다).



< 그림 3-2 > 분홍색 배경에 꽃 가득한 만드리 방



< 그림 3-3 > 과한 화장의 솔이

2) 덩동댕 친구들-장난감 나라의 비밀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4~7세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건 발생-해결의 이야기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장난감 나라 덩동시의 ‘인간 어린이 초대’를 통해 오게 된 7살 이하루를

중심으로 장난감 친구들과의 우정, 하루와 장난감 친구들의 사이를 시기하는 단추마녀의 질투, 이들 간의 갈등과 문제해결 과정이 프로그램 서사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상반기에 방영된 프로그램 중 5편을 골라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4> 방영일자 및 주제

방영일자	프로그램 주제
3월 5일	가족노래자랑
3월 9일	행운의 팔찌
3월 17일	하루의 그림일기
3월 19일	이런 마녀는 처음
3월 26일	장난감 나라가 멈춰어

(2)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이 프로그램에는 매회 10명 내외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이하루: 장난감을 사랑하는 씩씩한 여자 어린이
- ② 킁킁 시장: 덩동시의 시장으로 문제해결의 멘토 역할.
- ③ 이즈라: 귀엽고 힘센 토끼 인형, 태업을 배면 커져버림. 걱정거리를 잊으라는 의미의 네이밍.
- ④ 캡틴 우주로: 지구평화, 우주정의를 지키는 자
- ⑤ 노라라: 덩동시의 인기가수, 항상 노래하고 춤춤.
- ⑥ 킹수수: 킹수수TV의 진행자, 옥수수계의 넘버원. 수다스러운
- ⑦ 마시&멜로: 두상과 팔, 몸통은 머그잔으로 되어있는 샤르르 카페의 주인 자매. 쿠키를 팔아 차곡차곡 모은 하트몬드로 부자가 됨.
- ⑧ 단추마녀: 프로그램 중 악역에 해당, 못된 심술을 부리거나 괴롭힘
- ⑨ 몬자: 먼지 덩어리, 단추마녀의 부하이자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처럼 함께 함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이하루는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바가지 머리의 외모, 옷차림 그리고 씩씩하고 밝은 성격으로 일반적인 여자아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덩동댕 유치원>은 기존의 젠더 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를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다. 덩동시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킁킁시장의 경우, 남성이지만 흔히 여성의 색으로 인식되는 분홍색 의상 착용하고 있으며, 킹수수의 경



<그림 3-4> 주인공 이하루의 모습

우 수다스러운 인물로 남성은 과묵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자 했다. 귀여운 토끼 인형인 이즈라는 마음이 여리고 의존적인 모습-여성스러움으로 인식되는 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반대로 조신함과 거리가 먼 행동-방귀를 잘 뀌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덩동댕 유치원>의 등장인물들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 속에 있다고 본다. 덩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위치에는

남성인물들이 존재한다. 킁킁시장이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조언과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라는 것을 볼 때, 대표성을 갖는 위치 있는 사람은 시니어 남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구평화를 지키는 캡틴 우주로의 경우, 여타 장난감 친구들에 비해 출연 비중이 높고, ‘히어로=남성’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림 3-5> 단추 마녀의 모습

단추마녀를 제외한 여성인물들(예를 들면 이즈라, 마시 & 멜로)의 경우, 흔히 여성적인 특성으로 거론되는 의존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인 일을-마시 & 멜로의 쿠키판매를 통한 부의 획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할 존재는 단추마녀이다. 프로그램에서 주로 갈등을 유발하고, 못된 심술을 부리며 이하루와 장난감 친구들을 괴롭히는 단추마녀의 존재는 흡사 아이들 동화

책에 등장하는 마녀를 떠올리게 만든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많이 지적을 받아왔던 동화책 속 마녀와 유사한 그녀의 외양-진한 화장과 검은 옷-은 자칫 청장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 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그녀가 괴롭히는 대상이 이하루라는 어린아이이고,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역시 문제적이다.

(3) 주요 회차별 내용에 대한 평가³⁾

① 가족노래자랑, 3월 5일 방영

줄거리 | 장난감 나라에 가족 노래자랑 대회가 열리고 대상팀에게는 우주여행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단 참가조건은 반드시 가족이 참여할 것. 우주여행을 위해 킹수수의 가족인 척

3) 이 부분은 5개의 에피소드 중 주목할만한 부분만을 서술하였다.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이라 내키지 않던 이즈라도 함께한다. 할아버지(킹수수), 할머니(이하루), 아빠(캡틴우주), 엄마(이즈라), 딸(노라라)로 위장하고 이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단추마녀 역시 대상을 타기 위해 문지와 함께 아들로 분해 노래연습에 매진한다. 대회 날 땃뿔 가족 팀의 공연이 성공리에 끝나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 본 단추마녀는 심사위원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감동작전을 짠다. 아들에 대한 엄마의 부족한 사랑에 대한 미안함과 눈물어린 고백의 노래에 감동 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단추마녀 모자가 대상 수상자가 된다. 이를 본 땃뿔 가족팀의 이즈라는 단추마녀와 문지가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자신들 역시 가족이 아닌 친구사이임을 고백한다.

심사위원들은 논의 끝에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가족의 형태가 꼭 남성 여성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단추마녀와 문지의 경우에도 서로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으니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냈으나, 거짓말을 한 팀에게는 대상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 그림 3-6 > 앞치마를 두른 아빠의 모습

평가 | 이번 회차는 가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친밀성'임을 지적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성+여성+아이'라는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정,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 1인 가족 등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시하였다. 단추마녀와 문지의 경우, 가족애가 있는 동거형태도 가족의 모습이라고 한 점은 가족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대회에 참여하는 아빠(캡틴우주)의 복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넥타이를 한 모습으로 성별 역할 고정을 탈피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하지만 인물 설정에서 나타난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상황인지라(예를 들면, 쿵쿵시장), 직업적 성별 고정관념의 전형을 답습하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② **행운의 팔찌, 3월 9일 방영 / 하루의 그림일기, 3월 17일 방영 / 이런 마녀는 처음, 3월 19일 방영**

각 회차별 줄거리 | 행운의 팔찌(3월 9일 방영) / 킹수수티비에서 킹수수는 땃뿔시 꽃이를 맞이하기 대회 개최 소식을 알린다. 화단을 관리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매년 대회 참가자는 이즈라 한명 뿐이라는 사실을 접한 단추마녀는 대회에 참가해 우승해서 땃뿔시 화단의 모든 꽃을 없애버릴 것을 결심한다. 단추마녀의 대회참가를 접한 이즈라는 단추마녀에게 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상실한다. 대회가 시작되고 1라운드에서는 단추마녀가 우승한다. 2라운드 시작 전에 이즈라의 용기를 다시 북돋우기 위해 하루는 행운의 팔찌를 이즈라에게 선물하고 마시, 멜론도 첫 번째 손님으로 당첨된 이즈라에게 쿠키를 선물한다. 친구들과 모두 모여 왕 게임을 한 이즈라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더욱 행운의 팔찌 덕분이라고 굳게 믿는다. 2라운드는 이즈라의 승, 그 원인이 행운의 팔찌임을 알게 된 단추마녀는 문지를 쿵쿵시장으로 변신시켜 이즈라의 팔찌를 빼앗아간다. 행운의 팔찌가 없어진 이즈라는 다시 자신감을 잃고, 이를 본 하루는 사실대로 행운의 팔찌라는 게 없음을 고백한다. 팔찌 없이도 꽃을 제일 사랑하는 이즈라 자신에게 실력이 있음을 깨달은 이즈라는 3라운드 눈 가리고 꽃향기 맡아 이름 맞추는 코너에서 이기게 된다.

하루의 그림일기(3월 17일) / 하루의 그림일기를 보게 된 우주로, 노라라에게 쿵쿵 시장은 그림일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킹수수티비에 출연한 이하루는 수수깡 친구들에게 일기내용을 공개한다. 킹수수티비를 본 단추마녀는 하루의 그림일기 속에 자신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땃뿔시 도서관에 가서 일기를 빼앗아 읽어본다. 일기 속에 문지 관련 일화에서 하루는 쿵쿵시장으로 변신한 문지의 사연을 듣게 된다. 문지였을 때는 친구들이 싫어하지만 쿵쿵시장으로 변신하면 잘 대해 준다는 말을 듣고 하루는 문지에게 본연의 모습이 좋다고 응원한다. 일기 속에 자신의 모습이 없어 화가 난 단추마녀는 심술이 나 하루의 그림일기를 내던진다. 하루의 그림일기에 나오고 싶어 단추마녀는 하루 앞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열어 피아노실력을 뽐낸다. 하지만 그날 밤 일기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없자 또 실망한다. 의도적으로 일기내용을 연출하기 위해 단추마녀는 하루의 비행기를 마법으로 꼭대기에 걸리게 한 후 해결사처럼 등장해 비행기를 꺼내주고 문지는 드러나게 하루 앞에서 일기 문장의 힌트를 되낸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하루는 일기를 쓰고 이후 나타난 단추마녀가 하루의 일기를 살핀 결과, 아주 작게 그려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신이 난다.

이런 마녀는 처음(3월 19일) / 마녀협회에 정식마녀로 합격소식을 기다리던 단추마녀에게 도착한 영상 편지에서 시니어 마녀는 마지막 관문인 빛자루타기 시험에서 탈락했으나 재도전 기회에 강력한 경쟁자와 겨뤄 비열한 수단과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마녀가 정식마녀는 물론 월간마녀의 표지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린다. 단추마녀는 이하루를 괴롭힐 것을 결심하고 물건에 뿌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변신 마법가루를 만든다. 지퍼마녀는 경쟁자 단추마녀를 이기기 위해 단추마녀의 약점을 찾아내 못되게 굴기 위해 마법을 부려 그 약점이 이하루 라는 것을 알아낸다.

한편 땃뿔시에서는 장난감 친구들과 하루가 준비한 바자회가 열린다. 마시, 멜로가 준비한 특별 간식을 먹기 위해 도서관에 모인다. 그 사이 단추마녀는 바자회의 물건을 마법가루를 뿌려

영망으로 만들고 이를 목격한 킹수수도 마법가루를 통해 인형이 된다. 인형이 된 킹수수를 발견한 친구들과 콩콩시장은 단추마녀의 짓임을 알아차리는 한편 지퍼마녀는 평가의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 인간 이하루를 괴롭히고자 다짐한다. 하늘에서 떨어져 뒹둥시에 온 지퍼마녀는 그 자리에 있던 노라라와 콩콩시장마저 마법으로 인형으로 만든다. 망연자실한 우주로, 이즈라, 마시,멜로, 이하루 앞에 나타난 단추마녀는 하루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는 점에 감동을 한다.

이후 '와리加里뽀작'노래를 부르며 등장한 지퍼마녀는 이하루를 데려가려 한다. 하루는 콩콩시장과 노라라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건을 내걸고 지퍼마녀 쪽으로 간다. 단추마녀는 무서워하는 이하루를 구해내는 대신 정식마녀 되기를 포기한다. 그리고 하루로부터 인형선물을 받아 좋아한다.

이 세 편에서는 유아동 프로그램에서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는 설정과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지적되었다.

3월 9일과 3월 17일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갈등이 경쟁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경쟁구도를 과연 유아가 보는 프로그램에도 보여줘야 하는가? 유아동 프로그램 역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서사를 피해갈 수 없다면 그 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특히 3월 17일 '이런 마녀는 처음'에서는 회원수가 제한된 마녀협회, 거기에 못된 짓을 해야 정식회원이 된다는 설정은 과도하다. 나쁜 일을 점수화한다는 설정이 과연 유아동 프로그램에 적절한지는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3월 17일과 3월 19일에 방영된 프로그램의 경우, 마녀들의 언어사용의 문제 역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웃기시네~', '시끄러!', '첻!' 등 아이들, 그리고 경쟁상대를 비웃고 경멸하는 대사가 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유아동 프로그램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 또깨비 가족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또깨비 가족과 인간이 함께 지내며 생기는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인간관계, 환경 보호 등 아이들의 인성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룬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이다.

'솔직하게 말할까?'(4월 30일 방영분), '또 하나의 가족'(5월 7일 방영분), '여자라서 안된다고'(5월 14일 방영분), '울고 싶지 않아'(5월 22일 방영분), '사랑이란 무엇인가'(6월

25일 방영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주요 등장인물

- 태양 : 전체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도깨비로 남자아이이다. 사고를 치고 겁도 났다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 감정의 진폭도 다양하다.

- 수빈 : 여자아이 태양과 마찬가지로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지만, 태양에 비해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고 항상 태양과 함께 나온다. 성격에 큰 특징이 없고 매회 치마를 입고 있어 여자아이의 외모, 옷차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보보 : 보조자 역할 도깨비. 큰 대사가 없다. 성별 유추가 어려운 것이 특징.

- 태양이 가족 : 주인공 태양이의 가족. 아빠, 엄마, 할아버지로 이루어져 있다. 회차에 따라 가족 내의 성별 역할 분리를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5월 17일 방영분에서 아빠는 앞치마를 하고 요리를 잘하는 모습이나, 논문을 쓰는 엄마를 위해 빵을 굽는 등의 모습은(4월 30일 방영분)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의 이미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엄마는 수빈이와 태양이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5월 14일, 5월 22일 방영분) 하지만 엄마만 아빠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점은 가부장제의 위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



< 그림 3-7 > 언제나 머리핀을 꽂고 등장하는 수빈

(3) 주요 방영분에 대한 분석

- 또 하나의 가족, 5월 7일 방영

줄거리 | 애견샵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는 태양과 수빈, 보보. 태양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른다. 그러나 안 된다는 엄마의 말에 시무룩해한다. 할아버지는 시무룩해하는 태양이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 밖으로 나가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태양이와 수빈이, 보보.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생활 수칙과 안전 수칙 등을 배우고,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태양, 수빈, 보보.

보보는 강아지를 기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수빈이는 강아지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 수빈이는 강아지가 자신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강아지가 필요할 때 자신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태양은 여전히 강아지를 기르고 싶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하며 에피소드는 끝난다.

평가 |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다. 돌봄 노동의 의미를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여자라서 안된다고, 5월 14일 방영

줄거리 |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 수빈이. 그런데 수빈이의 친구가 수빈이에게 여자는 힘이 약해서 야구선수를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여자는 왜 안되냐고!’하는 수빈이. 아빠가 맛있는 걸 해주기로 했다고 수빈이를 위로하는 태양. 태양의 아빠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요리를 좋아해서 자꾸자꾸 하다보니까 요리를 잘하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자신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자꾸자꾸 하면 야구를 잘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수빈이. 태양이 아빠는 노력하면 수빈이도 야구를 잘할 수 있을 거라 말한다. 수빈이가 오늘 친구가 ‘여자는 야구를 못한다고 했다’고 말하자 태양의 엄마가 나와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태양과 수빈이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준다. 여자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엄마. 남자는 힘이 세고, 몸으로 하는 걸 잘한다고 한다. 뇌에서 발달하는 부분이 달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힘이 센 여자도, 다정한 남자도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자라서 안 돼, 남자라서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다 같이 야구를 하러 나가는데, 야구를 못하는 수빈이. ‘여자라서 못하냐?’라는 수빈이. 그때 ‘아니야 수빈아 할 수 있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여자 야구 국가대표 투수 선수가 나와서 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준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용기를 얻은 수빈이는 열심히 연습해서 꼭 야구선수가 될 거라 다짐한다.

평가 | ‘여자라서 안 된다고?’는 기존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수빈이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수빈이가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활동적인

모습이 딱히 두드러지지 않은 점, 옷차림에 있어 여전히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온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야기는 부분에서 이미 학계에서 도전받아온 생물학적 결정주의에 근거한 설명은 다소 문제적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논문을 찾아보면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더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 물론 그 반대의 주장, 즉 남자와 여자의 뇌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주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내용인데, 그 중 하나를 과학적 증거로 가져와서 ‘사실’로 제시했다는 점은 아쉽다. ‘차라리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에게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예외가 아주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답다, 남자답다로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식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국가대표 여성 야구 선수의 등장은 의미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전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수빈이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는데 야구를 못한다는 설정 보다는 차라리 야구를 잘하지만, 여전히 여자 야구 선수를 본 적이 없어서 아쉽다라던지, 특정 포지션이 조금 어렵다던지, 이런 식으로 전개 되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 울고 싶지 않아, 5월 22일 방영

줄거리 | 친구들과 다같이 게임을 하는 태양. 그러다 게임에서 진 태양이는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가 태양이를 위로하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양이. 그러다 수빈이가 함께 야구를 하자고 부른다. 야구를 하러 나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태양이는 지면 우니까 같은 팀 하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난 태양이는 야구를 하지 않겠다고 버린다. 도대체 눈물은 왜 나는지 궁금해진 태양이와 수빈이. 눈물이 나오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주는 엄마. 그러나 태양은 눈물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수빈이와 보보와 함께 눈물 참는 법을 찾는 태양. 아빠가 태양이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옛날에 울지 않는 돌이가 있었다. 돌이는 순이를 좋아하고, 순이도 돌이를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어느날 순이가 아파 몸져 눕게 되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데 돌이 혼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순이는 돌이와 헤어지기로 한다. 그러자 돌이는 슬픔에 쌓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들은 순이는 감명 받아 마음을 돌리고 결혼하게 되었다.> 이야기가 로맨틱하다는 보보와 수빈이. 그러면서

4) <한겨레> 2020. 9.11자 기사. 임소연의 여성, 과학과 만나다: ‘여자의 뇌, 남자의 뇌’따로 없다

태양이도 눈물로 두 사랑이 이어졌다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운다. 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울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태양이. 아빠와 수빈, 보보가 태양이를 보고 멋지다고 칭찬해주며 끝난다.

평가 | 남성 아이의 ‘울음’에 대한 편견과 그에 대한 도전/극복을 이야기한 에피소드라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행위 규범이 사실 고정관념이고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점)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태양이가 우는 것을 창피해하는 상대가 수빈이라는 점이다. 그는 수빈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보다는 강해야한다는 식의 대사를 자주하는데(무서운 이야기 듣고 밤잠 설친 뒤 수빈이 앞에서 부끄럽다는 식), 기존의 젠더 관계에 입각해서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아울러 우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 역시 이성애에 기초한 사랑얘기를 통해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울 수 있음이 기존의 지배적 남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에피소드가 소재적으로는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틀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편견에 대한 도전을 다룰 때, 도전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 및 서사에 대한 개발이 요청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6월 25일 방영

줄거리 | 태양이와 수빈이가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다. 수빈이가 네잎클로버를 찾자 태양이가 부러워한다. 수빈이는 자신이 찾은 네잎클로버를 태양이에게 주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라고 한다. 태양이는 수빈이가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기분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들어오니 아빠와 엄마가 태양이 손에 있는 꽃반지를 보고 함께한 기억을 추억한다. 예전에 둘 사이가 친구일 때 아빠가 엄마에게 꽃반지를 주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태양이에게 얘기해준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온다고 설명해주는 엄마. 그러자 자신이 수빈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태양. 태양이는 수빈이가 보고 싶어졌다. 사랑하는 수빈이에게 자신이 가진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태양.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야구 배트를 주기로 한다. 그리고 이걸 주면서 ‘이거 받으면 내 여자친구 하는거다?’라고 하고 수빈이가 수락하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빈이를 만나 야구 배트를 주려고 하는데 수빈이는 다른 친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수빈이에게 네잎클로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더 찾는대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겠다는 수빈이. 그러자

수빈이에게 너무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태양이. 그런 태양이가 걱정되어 수빈이가 따라오지만 태양이는 수빈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속상해진 태양이는 엉엉 운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태양이에게 사랑은 원래 그런거라고 위로해준다. 그리고 태양이에게 아빠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 말해준다.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아빠. 그러자 태양이는 수빈이와 함께 웃는 것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수빈이를 찾아 나서는 태양이. 수빈이에게 아까는 미안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수빈이는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니까’라고 말하고 다시 심장이 뛰는 태양이의 모습으로 끝난다.

평가 |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회차인데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적이다. 수빈이가 태양이에게 ‘친구로서 준 호의’를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호의라고 착각한 태양이가 수빈이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 호의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 모두에게 하는 친절이라는 것을 알고 화를 낸다. 그러다가 다시 수빈이가 웃는 것이 좋다고 화해하는 내용.

문제적 부분은

1. 친구로서 베푼 호의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장면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친구로서 베푼 호의를 사랑으로 착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베푼 호의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 내가 착각했구나. 수빈이는 그저 친절했던 것 뿐이구나’라고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빈이를 향한 마음이 지속된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을 연애 감정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는 남성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당 에피소드의 주제는 ‘호의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자’로 가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남성중심적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
2. 태양이의 부모님은 서로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준다. 아빠가 엄마와 친구였을 때 꽃반지를 주었고, ‘나랑 사귄래? 나랑 사귄 마음 있으면 반지를 꺼줘.’라고 한다. 태양이도 그것을 듣고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 배트를 가지고 가서, ‘이거 받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라고 한다. 수빈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수빈이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도 문제적이며, ‘무언가를 받았으니까 나를 받아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은 잘못된 관계 맺음의 방식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4) 모여라 덩동댕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모여라 덩동댕은 초등학교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번개타운’과 ‘뚝딱 이야기나라’ 2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번개타운’은 ‘나잘난’과 ‘더잘난’이 번개타운 친구들을 괴롭히지만, 다 함께 힘을 합쳐 번개맨을 부르면, 우리의 영웅 번개맨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지켜준다는 내용이다. ‘뚝딱 이야기 나라’는 뚝딱이와 뚝딱이 아빠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한 코너이다.

분석 회차는 ‘걱정인형’, ‘개구리의 결혼식’(2월 15일 방영), ‘나는 마리오란 말이오’ 2019 ‘잡자는 숲속의 공주’(2월 29일 방영), ‘꽃이 활짝 피어나’, ‘일곱 난장이 꿈찾기’(3월 14일 방영)이다.

(2) 주요 등장인물

- ① 나잘난과 더잘난: 번개타운에 문제를 일으키고 번개타운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인물.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인물들임. 의상을 보면 중성적인 색조의 의상을 입고 있지만 어깨선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번개맨과 번개걸: 번개파워를 활용해 번개타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자이다. 그러나 이들의 외양,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위치나 활용하는 능력은 전통적인 젠더 관념에 머무르고 있다. 번개맨은 파란색의 근육질의 남성을 표상하는 의상을 착용한 반면, 번개걸은 분홍색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다. 두 인물은 동일하게 번개 파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분석 대상 에피소드에서 번개걸은 언제나 보조적 해결자에 머무르고 있으며, 번개맨이 주 해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해결과정에서 번개맨이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 힘으로 나잘난과 더잘난을 제압하는 반면, 번개걸은 피해를 본 인물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③ 마리오: 항상 마을을 살피고 마을에 고장난 장비들을 수리 관리한다. 기술에 능하며 친구들을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④ 뚝딱이: 번개별에 살고 있는 장난꾸러기 도깨비
- ⑤ 뚝딱 아빠: 자상한 성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뚝딱이 아빠

매회 노래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남성캐릭터들이다(나잘난, 더잘난, 마리오, 번개맨). 남성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들에 비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소개됨과 동시에 노래의 가사 역시 전형적인 남성성의 특성에 머무르고 있다(마리오는 ‘만능 로보카’, 나잘난, 더잘난은 ‘잘난 품생폼사’, 번개맨은 ‘정의의 용사’).

(3) 주요 방송분에 대한 분석

- 번개타운

분석 대상 방영분에서 드러나는 특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기본 서사구조에서의 남성중심성 | 전반적으로 번개타운은 번개맨이 등장하기 전까지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고 번개맨의 활약을 통해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남성영웅 중심의 서사를 답습하고 있다. <나무할아버지의 약속> 편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나무할아버지’ 역시 남성으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번개걸과 마리오는 나무할아버지와 친구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웅 주인공을 보조하는 인물들이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서사는 기존의 성별역할분리 담론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젠더 관념에 근거한 의상 착용 | 주요 등장인물인 나잘난, 더잘난, 번개맨 및 번개걸의 의상 외에도 노래 부르기 등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의 의상 역시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걱정인형> 편에서 남자 아이들은 모두 번개맨과 동일한 의상을 착용한 반면, 여자 아이들은 모두 분홍색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그림 3-8>의 위쪽 사진). ‘꽃이 활짝 피어나’편의 경우, 이전 편에 비해 아이들이 다양한 색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지만, 여자 아이들은 모두 치마를 입고 긴 머리에 머리를 묶고 등장하여 여성스러운 외양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실한 모습이다(<그림 3-8>의 아래쪽 사진).



<그림 3-8> 모여라 덩동댕 번개타운 등장인물의 의상

- 똑딱 이야기 나라

개구리의 결혼식, 2월 15일 방영 | 전형적인 왕자-공주 서사를 담은 이야기이다. 왕자가 노랫소리에 반해 청혼을 하고 목소리의 주인공인 개구리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왕자의 상대로 적절한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변해서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개구리는 자신이 왕자에게 어울리는 외형이 아님에 청을 거절하려하지만 사람으로 변한 후 바로 수락하는 결말이다. 이런 모습에서 주도적인 남성 캐릭터, 수동적인 여성캐릭터의 상반된 모습이 강하게 대비된다. 청혼하는 모습에서도 남성은 무릎을 꿇고 여성은 승낙하며 수줍게 손 내미는 영상이미지들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와 같은 전형적인 공주 서사와 유사하다. 왕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붓감을 찾으러 다니고, 왕자가 청혼을 하면 여성은 그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왕자가 공주 혹은 여성에게 반하고, 난관을 헤치고 끝내 여성을 차지하면서(결혼) 끝나는 동화는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구조와 함께 전반적인 등장인물에 있어서 아이들의 화장이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 EBS 스튜디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아이들의 과한 화장 특히 여자 아이들의 과도하게 보이는 꾸밈노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2월 29일 방영,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 기존의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앞부분은 전개가 유사하지만,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 서사가 아니라, 똑딱이 아빠가 문제 해결의 멘토로서 봄의 요정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구조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작이 가지고 있는 여성혐오적인 부분-악을 담당하는 인물로서의 마녀, 그녀의 기괴한 외양과 폭력적인 행위-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은 아쉽게 다가온다.



<그림 3-9>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편의 마녀의 모습



<그림 3-10> 경찰 역할로 등장한 여아의 모습

기존의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공주가 아닌 난쟁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꿈을 찾는 내용으로 각색한 이야기다. 유명한 동화이기는 하지만, '난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경찰역할로 여아가 등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용감한 양치기 편, 3월 28일 방영

줄거리 | 잠든 공주를 바라보며 마법사 3명이 누구든 깨우고, 재울 수 있는 요술 닭, 변신지팡이, 생명의 구슬을 선물로 주고 서로 내가 공주와 결혼한다며 다툰다. 결혼이 나지 않자 공주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요술 닭으로 공주를 깨운다. 잠에서 깬 공주가 도와달라고 외치자 요술 닭으로 다시 잠들게 한다. 마법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양치기가 공주를 구하려고 하지만 마법사들에게 들킨다. 양치기가 몰래 가져간 생명의 구슬을 돌려주는 댓가로 공주와 요술 닭, 마법 지팡이를 받기로 하고 요술 닭으로 마법사들을 재운다. 양치기는 공주를 깨워 구하고 함께 탈출한다.

이야기 시작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문제는 공주가 부모님 몰래 밖으로 나오면서 시작된다. 주체적이고 모험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주는 잠이 들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나 깨어 있을 때에도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위치 지워진다. 아울러 말괄량이 또는 전통적인 여성성에 벗어난 순종적이지 않은 인물은 벌을 받는 이야기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극의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양치기가 구해줬으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노랫말을 통해 순종적인 얌은 여성에 대한 처벌 서사는 다시금 확정된다. 물론 이러한 조언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림 3-11> 용감한 양치기 편의 공주, 양치기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부모의 말’이며 말을 따라야하는 사람이 ‘왜 여성이어야 하는가?’이러한 이야기구조는 가부장제 위계 속 부모 자녀 관계의 위압성과 성편향성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공주의 외모나 공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공주가 잠들었을 때에도 위협하고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외모만을 강조하는 공주의 의상과 동작 및 카메라 초점 이동은 매우 아쉽게 다가온다.

반면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양치기와 마법사는 전형적인 남성성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마법사들은 폭력적이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이다. 경쟁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신비한 물건을 주고 공주를 차지하겠다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법사의 행동에 대한 비판/비난을 담은 그 어떤 지적도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더불어 생명의 구슬을 돌려주는 댕가에는 요술 닭, 마법지팡이와 함께 공주도 포함 되어있다. 이러한 서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여성에 대한 대상화,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이 TV 유치원에서 위협스럽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주를 구하는 양치기는 상황판단도 빠르고 책임감도 강한 인물로 나와 전통적인 공주-왕자 동화에서 왕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뭐든지 뮤직박스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뭐든지 뮤직 박스>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으로 음악을 추측하고 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의 소개란에는 클래식 음악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유아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명의 성인 MC와 유아 2명이 음악을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박스맨이 무엇인가 들어있는 박스를 출연자들에게 전달한다. 출연자들은 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낸다.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토리, 때로는 애니메이션이 제시되기도 한다. 메인 멜로디가 완성되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뭐든지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말과 함께 코너가 끝난다. 마지막으로 전문 연주자가(클래식, 재즈 등등) 음악을 연주하며 프로그램은 마무리 된다.이번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회차와 해당 회차의 프로그램 제목은 다음과 같다.

< 표 3-5 > 방영 일자와 프로그램 주제

방영일자	주제
05월 08일	토닥토닥 안마해요
05월 14일	맛난 옛이야 맛난 옛
05월 21일	숲속의 대장간
05월 29일	얼음공주
06월 18일	하늘 저 높이

(2) 주요 등장인물 분석

<뭐든지 뮤직박스>에는 매 회마다 4명의 등장인물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MC를 담당하고 있는 후니 선생님(정성훈 분), 박스맨, 그리고 2명의 유아(남아, 여아)가 그들이다. 보조출연자인 지유와 시우의 성비 균형은 맞지만, 2019년 4월 4일 첫 방송이 시작된 이래, 메인 MC는 모두 남성 음악인 또는 배우들이었다.⁵⁾ 남성들이 유아 프로그램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남성 역시 돌봄/육아 관련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프로그램의 전반을 이끄는 캐릭터의 남성 편중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라보면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이번 분석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0년 2월에 종영된 시즌 2의 MC가 여성혐오적 가사를 작사하고 노래했던 데프콘이었다는 점은 문제적으로 여겨진다. 박스맨 역시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시즌에서는 여성 MC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유와 시우의 경우, 여아인 지유는 에피소드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편에서 치마를 입고 나온다. 심지어 트램펄린을 타는 에피소드(5월 8일 방영분, 토닥토닥 안마해요)에서도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아이들의 옷차림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3) 주요 방송분에 대한 분석

① 기존의 통념을 깬 “맛난 옛이야”

박스맨이 후니 아저씨와 아이들에게 박스를 전달한다. 박스를 열기 전 박스를 흔들어보니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박스 앞에 있는 스티커를 떼보니 <맛난 옛이야, 맛난 옛>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다. 박스를 열어보니 옛이 들어있다. 후니 아저씨와 아이들은 옛을 나눠먹고 노래를 부르며 옛으로 게임을 한다. 그 뒤에 나온 애니메이션에서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옛장수 아주머니가 옛을 가지고 오고 고물을 옛으로 바꿔준다. 그 뒤 코너가 바뀌고, 소리꾼이 나와 이

5) 시즌 1은 하하, 시즌 2는 데프콘이 담당했다.

멜로디가 포함된 <옛타령>을 열창하며 프로그램은 끝난다.

<그림 3-12>에서 알 수 있듯이 회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옛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저씨’가 아닌 ‘아주머니’라는 점이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바지를 입은 외모의 그녀는 화통한 목소리로 “옛이야”를 외친다.



<그림 3-12> 여성 옛장수, 짧은 머리에 속눈썹 없는 여성들, 여성소리꾼의 모습

마지막 코너에 ‘옛타령’을 부르는 인물도 여성 소리꾼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등에서 남성이 옛장수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은 신선하다. 다른 회차의 애니메이션과 달리, 옛장수외의 등장인물 역시 외모에 있어서 여성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속눈썹이 드러나지도, 긴 머리도 이 회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성별 스테레오 타입의 틀 속에 있는 숲속 대장간, 얼음 공주

숲속 대장간, 5월 21일 방영

줄거리 | 박스맨이 후니 아저씨와 지유와 시우에게 전달한다. 박스를 열기 전 박스를 흔들어보니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박스 앞에 있는 스티커를 떼보니 <숲속의 대장간>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다. 후니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대장간이 무엇인지 설명해준다. 박스를 열어보니 메탈로 된 실로폰이 나온다. 후니 아저씨는 실로폰의 소리가 대장간에서 쇠를 만들 때 생기는 소리 같다고 추측한다. 곧바로 애니메이션으로 숲속의 대장간에 두 명의 요정,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여 신발을 만들고 대장장이 아저씨에게 선물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후니 아저씨와 아이들은 실로폰을 치며 내가 대장장이가 된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든지 이야기 나누고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부르며 실로폰을 친다. 그 뒤 코너가 바뀌고, 네 명의 앙상블이 나와서 이 멜로디가 포함된 <숲속의 대장간>을 연주하며 프로그램은 마무리된다.

앞선 ‘맛난 옛이야, 맛난 옛’ 에피소드와 달리 이 회차의 대장장은 ‘아저씨’ 즉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장간이라는 공간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노동했던 장소였음을 고려할 때 해당 에피소드에서 등장인물의 남성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은 예견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대장간을 현재의 제조업 분야로 치환해 보았을 때 대장간에서처럼 여전히 여성의 모습은 부재한가? 한진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이 용접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담당해왔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인물-대장장이, 두 명의 요정의 성별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전통적인 인식에 머무는 프로그램 구성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 속 인물들-남성적 분야라 일컬어지는 곳에서 일하는 여성, 여성적 분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하는 남성-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3-13> 진행자의 머릿속에 그려진 대장장이, 대장간의 2명의 요정, 남성대장장이

얼음공주, 5월 29일 방영

얼음공주 편은 ‘백설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의 서사를 일정부분 반복하고 있다. 해당 편의 스토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줄거리 | 박스를 열어보니 커다란 얼음 안에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인형이 갇혀있다. 후니 아저씨와 아이들은 얼음 공주가 어떻게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추측하면서 얼음 공주를 구하기 위해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부른다. 후니 아저씨와 아이들이 노래를 몇 번 부르자 얼음 공주가 어떻게 얼음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어느 날 공주가 사는 작은 숲에 얼음 마법사(마녀)가 찾아와서 공주를 얼려버렸다. 숲속 요정들이 공주를 둘러싼 얼음을 녹여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이웃나라 왕자님이 등장해 멜로디를 부르며 얼음을

키스를 하지만 그래도 얼음은 녹지 않는다. 얼음 마법사가 얼음을 녹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왕자가 얼음, 땀! 하자 얼음이 깨진다. 살아난 공주는 왕자님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왕자는 앞으로 곁에서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애니메이션은 끝난다. 그 뒤 코너가 바뀌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이 멜로디가 포함된 <동물의 사육제 7악장 '수족관'>을 연주하며 프로그램은 마무리 된다.



<그림 3-14> 워너지 뮤직박스 중 얼음공주 편

이 스토리에서 공주는 주체성이 결여된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진다. 마법사의 마법에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저항하는 모습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동화들에서 그러하듯이 공주를 구원하기 위해 등장한 왕자의 등장은 사실 뜬금없다. 그리고 그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한다. 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황당한 일이다. 그녀가 왕자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왕자가 얼음을 녹이기 위해 시도한 (강제) 키스에 동의하지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왕자의 기지로 얼음에서 해방된 공주. 왕자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러자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왕자. 공주는 왜 스스로 탈출하지 않는지, 왕자가 공주를 구해준 보답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결말은 왕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으로 공주와의 결혼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왕자의 구해줌을 기다리던 공주는 처음 본 왕자가 자신을 평생 지켜준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왜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서만 구원을 받아야하고 그 보상이 결혼이어야 하는가? 키스가 아닌 '얼음땀'으로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은 진일보하였지만, '위기에 빠진 여성과 이를 구하는 남성'이라는 기존의 동화들이 가지고 있는 성 차별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설공주 류의 동화에서 공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마녀 즉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마법사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림 3-14>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마녀이다. 왜 여성의 적은 여성이어야 하는가? 위험을 초래하는 인물은 여성, 해결자는 남성이라는 이 구도 역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연주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모 및 옷차림 역시 문제적이다. 공주는 어깨가 드러난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 곱게 땀은 긴 머리에 속눈썹이 그려진 눈 공주,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남자 캐릭터에는 없는 속눈썹이 그려진 마녀의 모습은 여성캐릭터, 아름다운 여성캐릭터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등장하는 두 반주자의 모습도 이전 스토리가 주는 전형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공주처럼 입은 여성 반주자와 왕자와 같은 모습의 남성반주자. 왜 여성반주자는 전문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처럼 꾸며야 하는 것일까? 아이돌 프로그램에서의 앞 코너와 뒷 코너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해당 회차의 성차별적인 에피소드가 프로그램의 구성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예견된 결과이다.

6)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놀 권리를 보장하고 즐거운 놀이 경험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육자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애초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보육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7주간 특별 편성된 뒤 확대되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3,4,5월에 배우는 커리큘럼에 맞춰 기존에 EBS가 제작한 교육 콘텐츠에 새롭게 제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구성하였다. 그에 따라 번개맨, 뽀뽀, 한글 문어 뿌미 등이 생방송 유치원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2020년 4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5회분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표 3-6> 참조)

<표 3-6>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분석 회차 및 프로그램 구성

날짜	주제	프로그램 구성
4월 29일	튼튼해 지려면	인사 ▶ 방과후놀이 ▶ 오늘의 체조 ▶ 발가락 꼬집기와 발가락 놓기 ▶ 공 던지기게임 ▶ 줄넘기 노래, 발로차 노래 ▶ 축구공 게임 ▶ 호기심딱지 ▶ 축구장 만들기 ▶ 따르릉! 힘쌌어! 전화해 ▶ 워너지 뮤직박스 ▶ 뿌미랑 알쏭달쏭 등
8월 17일	아기가 태어났어요	인사 ▶ 방과후 놀이 ▶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 번개맨-번개걸과 함께하는 힘쌌어 ▶ 아기가 태어났어요 ▶ 코로나 19를 이기자 ▶ 우리집 음악회 ▶ 따르릉! 힘쌌어! 전화해 등
8월 20일	사랑으로 자라요	인사 ▶ 방과후놀이 ▶ 뼈약뼈약 병아리를 길러요! ▶ 사랑으로 자라요 관련 노래부르기 ▶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 ▶ 코로나19를 이기자 ▶ 우리집 놀이터 ▶ 방과후놀이 ▶ 따르릉! 힘쌌어! 전화해 ▶ 부모가이드 등
9월 3일	물사랑 놀아요	인사 ▶ 방과후놀이 ▶ 물과 기름으로 그림 그려요 ▶ 물놀이 관련 노래 부르기 ▶ 재밌는 음료 팔랑팔 ▶ 코로나19를 이기자 ▶ 우리집 놀이터 ▶ 방과후놀이 ▶ 워너지 뮤직박스 ▶ 따르릉! 힘쌌어! 전화해 ▶ 부모가이드 등
9월 16일	건강한 우리음식	인사 ▶ 방과후 놀이 ▶ 몸에 좋은 김치 ▶ 전통음식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 ▶ 된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우리집 식탁 ▶ 방과후 놀이 ▶ 따르릉! 힘쌌어! 전화해 등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 회차마다 8개에서 많게는 12개의 코너가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집 유치원'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인사-방과 후 놀이, 그리고 각 회마다 노래, 율동, 콩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등장인물 분석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캐릭터는 힘쌈과 햄팡이다.

① 힘쌈: 여자 선생님 힘쌈에서 남자 선생님 힘쌈으로

과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의 MC 겸 선생님의 역할은 여성들이 담당해왔다. MBC '뽀뽀'의 뽀미 언니나 KBS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의 하나 언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쁜 옷을 입고 예쁜 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3-15> 초창기 힘쌈의 활동 모습

새롭게 편성된 EBS 생방송 유치원의 프로그램 전체 진행을 맡은 선생님 역시 여성이지만 그 이름은 힘쌈이다. "놀 생각만하면 불끈 불끈 힘이 솟는 힘쌈 (중략) 에너지 뽀뽀하는 MC 힘쌈"이라는 소개글이 시사하듯 힘쌈은 기존의 MC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 역동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힘쌈은 물리적 힘과 지식을 동시에 갖춘 선생님이므로 무거운 매직 놀이 가방을 번쩍 드는가 하면 송판을 격파하는 등 아동 유치원 프로그램의 기존 MC들과 달리 여자 선생님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난 캐릭터였다.



<그림 3-16> 교체된 남자 힘쌈의 모습

하지만 2020년 6월 1일부터 힘쌈은 남자 힘쌈으로 교체되었다.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힘쌈'이라는 언어가 상징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더불어 초대 힘쌈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면은 아쉬움을 준다.

② 성중립적 캐릭터 햄팡

햄팡은 이분법적 성별 구조의 틀로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다. 분홍리본이 달린 선물을 받거나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여성인 듯 보이지만 태권도에 열정적인 모습에서 남성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핑크 리본으로 장식한 해바라기 씨앗이나 태권도 품띠를 선물받기도 하고 송판을 깨고 앞치마를 두르기도 한다. 모든 행동은 햄팡의 행동일 뿐, 여자라서 남자라서 라는 이유가 붙지 않는다. 성중립적 캐릭터가 생방송 유치원을 끌고 가는 주요 인물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햄팡은 유아기 어린아이를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 지라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 시정을 요청하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는데, 이는 어린 연령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각 회차별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특성

① 등장인물의 성비 불균형성과 성별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양상

등장인물의 전반적인 성비에 있어 남성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리더, 또는 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4월 29일 방영된 코너 '발가락 꼬집기와 발가락 농구'는 '운동=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인지 등장인물이 모두 남성이다. 이러한 편견은 같은 날 방영된 한글 공부 코너 '뽀미랑 알쏭달쏭'에서도 반복된다. 축구를 설명하면서 '남자 친구들이 좋아하는'종목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인물구성과 대사는 은연중에 여성은 운동과 거리가 먼 존재로 의미화하고 있다.



<그림 3-17> 튼튼해지려면의 발가락 꼬집기와 발가락농구

67회 사랑으로 자라요의 코너인 ‘뽀롱뽀롱 뽀로로’와 ‘번개맨’의 한 장면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이든 현실인물이 등장하는 코너이든 남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 그림 3-18 > ‘뽀로로와 친구들’& ‘번개맨-코로나19를 이기자’

75회 ‘물이랑 놀아요’의 코너였던 ‘물과 기름으로 그림 그려요’, ‘재밋는 음료 광광광’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푸하핫쌤이 과학과 관련된 퀴즈를 주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의문을 풀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남성인물인 출썩이가 등장해 실마리를 준다. 학생의 역할은 성인 여성과 남성 아동이 담당한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성인 남성에게 비해 성인 여성은 관련 지식이 빈약한 인물로 설정된다. 음식을 만들면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코너인 ‘재밋는 음료 광광광’의 경우, 관련 분야 지식이 풍부한 조수인 큐리(여성)가 셰프(남성)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든다. 지식은 부족하지만 남성 셰프는 큐리에게 반말로 과제를 부여하고 심사를 평가하는 등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큐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인물(공룡, 푸하핫쌤)은 남성형 캐릭터들이다. 여성이 여성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낯선 광경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주제가 과학이기 때문에 남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은 현실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교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존재를 삭제한다.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교육인력의 성별 다양성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82회 ‘건강한 우리 음식’ 역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 코너였던 ‘된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의 경우도 여성이 1명 출연하는 반면, 남성 출연자는 요리사를 포함 3인이거나 된다. 출연한 남자는 ‘우리 아빠는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만들어’라는 대사를 한다. 3F(food, fashion, furniture)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인물의 성비 불균형과 여성인물이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언급은 자칫 모든

영역에서 남성=리더라는 식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는 프로그램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② 시대착오적 내용 & 동요에 나타난 성편향성

64회 ‘아기가 태어났어요’의 코너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는 2005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을 통해 방영한 것이다. 해당 코너의 내용은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와 생명탄생을 주제로 난자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정자들의 모험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색채와 새로운 기법이 활용된 이 애니메이션은 제작 당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임신과정에 대한 힘썌의 설명처럼-“정자라는 아빠의 아기 씨앗이 난자라는 엄마의 아기 씨앗을 찾아서 엄마의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면 만날 수 있지.”- 프로그램의 전개는 ‘정자들의 모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난자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라는 대사가 시사하듯 수동적이며 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임신 과정에 대한 설명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자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정자의 여행이 매우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 험난하고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는데 비해 난자는 정적으로 한자리에서 평화롭게 기다리고 있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정자와 난자에 대해 알려졌던 ‘사실’들은 도전받고 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난자는 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자를 선택하고 임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자를 기다리는, 조신한 난자는 없다”라는 한 칼럼의 제목에서 보듯 “정자는 난자의 여포액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반응해 이동하는 수동적 존재인 반면, 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에 적합한 정자를 골라내는 능동적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애니메이션의 방영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사실 관점의 문제이며, 전문성의 문제이다. 새로이 연구되는 논의에 발맞춰 성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써 임신과정과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⁶⁾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과 같은 TV 유치원에는 언제나 동요 소개나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울동을 하는 코너가 등장한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동요는 정상가족에 기반한 성편향성 또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경향이 적지 않다. 생방송 유치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8월 20일에 방영된 ‘사랑으로 자라요’에서 불려진 ‘곰 세마리’에서 나오는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빠처럼 멋지게,

6) <한겨레> 2000. 7.31자 기사 임소연의 여성, 과학과 만나다: 정자를 기다리는, 조신한 난자는 없다.

엄마처럼 예쁘게”라는 노랫말들은 기혼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몸, 그리고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들이다.

9월 16일에 방영된 ‘건강한 우리 음식’중 ‘전통음식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에서 나온 “여러분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팔고물과 콩고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쟁반위에 올라서~”라는 가사는 신부 화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콩고물과 팔고물을 꼭 화장이라고 칭해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콩고물과 팔고물 입고”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TV 유치원 프로그램들의 이러한 성편향성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콘텐츠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19> 성편향적인 동요 가사와 출연자의 표정

③ 의상/악세서리 속 성별 다양성의 문제

힘쌌이라는 인물은 성별 고정관념에 맞춘 캐릭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즌 2의 남자 힘쌌의 경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성다움에 근거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여성=분홍, 남성=파랑’이라는 식의 정형화된 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색조의 의상을 착용하고 등장하는 점이다. 여자 힘쌌은 파랑, 분홍, 주황, 연두색 등의 옷을, 남자 힘쌌 역시 파랑은 물론 분홍, 보라, 민트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었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분홍은 여자색, 파랑은 남자색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20>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힘쌌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은 선생님의 등장은 ‘색은 색일 뿐’ 성별에 따라 입어야 하는 의상이 따로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한다.



<그림 3-21> ‘번짐효과를 이용한 그림그리기’의 한 장면

하지만, 색조외의 다양한 소품의 활용에서는 여전히 성별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75화 ‘물이랑 놀아요’의 코너인 ‘번짐효과를 이용한 그림그리기’의 한 장면을 보자

<그림3-2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남성인물인 힘쌌과 호떡은 앞치마를 하고 있지 않다. 반면 여성인물인 호빵은 분홍색 앞치마를 하고 있다. 앞치마가 필요한 작업이라면 다 같이 입고 불필요하다면 모두 입지 않아도 된다. 여성 또는 중립적 캐릭터인 햄팡이 앞치마를 착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은 정결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림 3-22> ‘사랑으로 자라요’ 중 등장한 오리가족

67회 ‘사랑으로 자라요’관련 노래 부르기의 세번째 노래는 아이들과 랄랄라 밴드팀이 함께 나와 율동을 하면서 함께 한다. 전주에 나오는 오리 가족의 의상을 보면 초록색 넥타이를 맨 아빠, 분홍색 스카프를 한 엄마가 등장한다. 아빠는 엄마에 비해 체구가 크다. 현실세계의 오리의 암수구별은 크기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다. 동물가족을 표현하는데 있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편향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러스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오리 가족 다음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여아들은 모두 빨간 리본 모양의 머리핀을



<그림 3-23> ‘사랑으로 자라요’중 율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의상

하고 있다. 여아와 남아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일까? 왜 리본일까? 모두 같은 모양의 머리핀이어야 했을까? 머리핀을 하지 않은 아이의 등장은 이상한 일일까?와 같은 질문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아이들의 옷차림이 여성의 꾸밈에 대한 제작진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다는 추정으로 이어진다.

7) 생방송 보니하니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생방송 보니하니>는 2003년 9월 29일에 첫 방영을 시작한 EBS의 간판 스튜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어린이 버라이어티 쇼의 형식으로 평일 저녁 6시~7일시까지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각각 다른 코너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월요일에는 학교생활의 고민을 보니하니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화요일에는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추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우당탕탕 경찰서’, 수요일에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인 ‘살리도’, 목요일에는 게임대결인 ‘보니하니 쇼’, 금요일에는 초등학생들의 마음에서 이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양한 형식(극, 인터뷰, 학교 방문등)으로 풀어가는 ‘초등력자 리턴즈’로 구성되어 있다.

<생방송 보니하니>는 다른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달리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자는 다양한 방식(문자, 댓글, 전화연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제작진 역시 유튜브 브를 통해 비하인드 컷을 방영하는 등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에는 생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한 남학생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이 그대로 방영되어 해당 날짜의 다시 보기가 삭제되었고, 2019년 12월에는 출연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논란으로 한 달여간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되었다.⁷⁾

이번 모니터의 분석 대상은 2020년 5월 25일 슬기로운 학교생활, 6월 9일 우당탕탕 경찰서, 6월 11일 방영분인 보니하니 출석체크/살리도 8월 7일 초등력자 리턴즈 9월 17일의 ‘보니하니 쇼’이다.

(2) 주요 등장인물 분석

각 코너별로 서로 다른 인물-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나오지만, 핵심적인 등장인물은 보니와 하니이다. 이 프로그램의 인물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각 코너에서

7) 2019년 12월 12일~2020년 1월 17일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폭행과 폭언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되었고, EBS 사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하였다. 황진미(2019. 12.13). 황진미 TV 특특- ‘보니 하니’폭행 논란...어린 여성 연예인을 지켜라, 지금 당장!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20794.html#csidxef2d11ec48193809788d0dc4fd1cb7 김명중 EBS 사장, ‘보니하니’ 논란 대국민 직접사과. (2019. 12. 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148700005>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각 인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⁸⁾와 함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보니와 하니가 담당한 비중이다. 분석대상인 5개의 회차 중 5월 25일에 방영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진행을 보니가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9월 17일 <집안일은 내게 맡겨>의 경우, 오프닝 멘트의 90%는 보니(남자 MC)가 담당하였고, 각 코너를 주도한 것 역시 보니였다. 하니의 역할은 코너가 시작되어서야 인지되기 시작한다(예를 들어 편지읽기 등). 5월 25일차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서처럼 프로그램을 열고 닫는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 모두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방안 등이 더 빈번하게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요 회차 분석

① 슬기로운 학교생활, 5월 25일 방영

줄거리 |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출연자가 나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보니와 하니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펭수 한정판 굿즈(goods)를 샀다고 자랑하는 친구에게 질투를 느껴 펭수가 직접 그런 그림을 주고 펭수와 매일 통화도 한다고 거짓말을 해 버린 소영에 관한 내용이다. 거짓말은 점점 늘어가고 친구들은 그런 소영을 부러워한다. 소영은 친구들에게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며 진실을 털어 놓을지 보니하니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그림 3-24 > 모든 출연자의 교복착용, 여성출연자의 짧은 치마 길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회차의 경우 남녀 출연자의 성비가 3:3이어서 성비를 맞추려고 한 제작진의 노력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펭수에 대해 자랑하는 것도, 이를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하며 ‘거짓말’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두 여성출연자이다. 이는 자랑,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젠더 고정관념을 답습한다. 마지막 코너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고민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누가 선물판을 굴릴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인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통화당사자가 보니(남성 MC)를 선택하자, 사과를 분장한 출연자가 ‘아’하며 화를 내며 스튜디오를 나가는 장면을 자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으로 여겨진다. 아이들이 시청하며 교육적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에 적절하지 않은 상

8) 이는 각 회차별 세부 분석에서 다를 것이다.

황전개는 향후 개선이 요청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의상에 있어 여성출연자의 교복은 남성 출연자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매우 불편해 보였다. 아이들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상, 그리고 세부 사항(노출, 치마길이, 구두착용 여부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② 우당탕탕 경찰서, 6월 9일 방영

줄거리 | 보하 금은방에서 금 두꺼비가 사라지면서 금 두꺼비를 훔쳐간 범인을 찾는 내용이다. 보하 금은방에 도착한 보니와 하니, 그리고 신입형사. 신입형사에 의해 2시에 멈춰 있는 깨진 시계가 발견된다. 그리고 용의자는 두 명. 금 두꺼비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래퍼 디와이와 금 두꺼비와 함께 모델 워킹을 하고 있는 모델리아. 하지만 두 명 다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다. 래퍼 디와이는 2시에 금천구에서 돌잔치를 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모델리아는 2시에 금산휴게소에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다.하지만 석연찮은 기분에 조작 가능성을 제기 하고, 국민형사(시청자)들의 투표로 누구의 사진이 조작되었는지 범인을 찾는다. 사진에 그림자가 없는 모델리아가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범인으로 밝혀진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신입형사는 하니에게 인형을 건네주며 ‘인형 같은 외모의 하니’라고 말하였고, 모델리아의 대사 중에 ‘제가 인삼 몸매이기도 하니까요?’와 같은 대사는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어 다소 불편하였다. 또한 등장인물 중 모델리아의 캐릭터 설정은 아쉬웠다. 모델로서의 전문성 보다는 그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들을 반복하고 있다. 외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몸매를 드러내는 듯한 포즈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모델에 대해 피상적으로 다가선 부분은 아쉬웠다. 의상부분의 경우, 하니가 경찰이라는 설정-범죄자에 대한 추적 등의 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은 하니의 모습은 상황에 맞는 의상이 아닌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본 회차 <우당탕탕 경찰서>에서 보니가 가장 많이 하는 대사는 “나 때는 말이야”이 대사이다. 예를 들어 보니가 “나 때는 말이야. 선배 그림자도 못 밟았어.” 이런 대사들은 우리가 탈피해야 하는 권위주의를 거꾸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하니는 경찰이라는 본 코너의 캐릭터 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닝때부터 클로징까지 치마 복장으로 등장한다. 하니에게 치마를 입혀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고



< 그림 3-25 > 생방송 보니하니 중 우당탕탕 경찰서

경찰이라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왜 E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여성 인물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직업과 상황에 걸맞는 분장과 의상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③ 살리도, 6월 11일 방영

줄거리 | 사니와 보니와 하니가 무인도에서 살면서 겪는 위험한 순간 및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그 해결책을 투표한 결과에 따라 그 상황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차의 내용은 전자레인지가 바다에 떠내려오면서 겪는 에피소드이다. 전자레인지에 전기를 연결하려 전기뱀장어를 잡으려다 사니가 감전이 되고 사니를 구한 보니하니는 전기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전기를 얻기 위해 사니가 자전거로 전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 내고 보니가 자전거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다. 그러던 중 사니가 또 다시 감전이 된 후의 먼저 감전된 사니를 구하기 위한 보니와 하니의 제안에 투표가 이뤄진다 보니의 재빨리 잡아당긴다와 하니의 신발바닥으로 뺨 찬다 중 하니의 의견이 선택되어 사니를 뺨쳐서 사니를 구한다. 고구마를 구워먹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두고 두 번째 선택이 이뤄졌다. 보니의 호일에 싸서 구워 넣는다와 하니의 종이로 싸서 넣는다 중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에 따라 종이로 싸서 고구마를 구워먹었다.

사니가 살리도에서 극을 이끌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무인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새로운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주체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만,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기 목소리로 앙탈을 부리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긴급한 상황에서 보니와 하니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하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특히 여성 출연자인 하니는 몸을 쓰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전기를 얻기 위해 보니는 이번 회차에서 자전거를 타며 전기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하니는 응원을 하거나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감전된 사니를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발로 뺨 찬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제안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감전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는 선택지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이 선택된 답지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보니와 하니는 사니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사니를 발로 차기 위해 티격티격 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명에 대한 절실함도 부족하고 폭력이 장난으로 희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살리도에서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 '변신로봇'인 것도 아쉬웠다. 로봇 외에 모든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른 선물은 없었을까? 특히 에피소드의 스토리에 맞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는 어떠했을까?

④ 초등력자 리턴즈, 8월 7일 방영

줄거리 | 생방송을 준비하는 보니하니 스튜디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보니하니 카메라 리허설 오프닝에서는 노랫소리가 갑자기 느려지고 돌림판에서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 9회연속 보니하니 인형이 걸린다. 보니와 하니는 꺼림직 해 하는 와중에 보니하니 코디들에게서 보니하니 괴담을 듣게 되고 퇴근하는 길에 수상한 느낌을 느낀다. 조연출과 FD로 밝혀지지만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이상한 소리를 쫓아가다보니 스튜디오에 있는 보니하니 동상을 만나게 된다. 보니하니 동상은 지하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니하니 녹화 중 약간의 장난을 치게 되고 보니하니 동상들은 실제로 보니하니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보니하니는 보니하니의 동상들을 실제로 보니하니로 만들어 주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보니하니가 실제로 녹화하듯이 동상들과 함께 코너를 하고 결국 보니하니 동상들이 실제로 생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해 보니하니와 함께 생방송 녹화를 진행한다.

이 회차는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보니의 멘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던 회차였다. 보니와 하니가 겪었던 이상한 일에 대한 녹화영상 속 나레이션은 모두 보니(남자)가 담당하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찍자'는 제안 그리고 동상들과 함께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보니와 하니가 방송국 안을 찾아다니는 장면에서는 보니가 플래시를 들고 앞장서는데 이는 은연 중에 보니(남자)는 보호하는 존재 하니(여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을 시사하는 듯하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이전에는 공룡 변신로봇, 인형집 세트등 특정 성별을 떠올릴만한 것들이었다. 이번 회차에서는 스마트코딩 로봇,

어린이전동킥보드, 어린이 홍삼스틱 등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선물로 구성이 바뀌었다. 본 회차에서 등장인물이 PD나 조연출등 방송국 스텝들이 여성으로 구성된 점, 또한 보니하니의 동상도 특정성별을 지칭하지 않았던 점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보니하니쇼-집안 일은 내게 맡겨, 9월 17일 방영

줄거리 | 이 에피소드는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한 보니(남자MC)와 하니(여자MC)의 집안일 대결하는 내용이다. 식탁보빼기 / 양말 짝맞추기 / 종이와 플라스틱 던져서 골인시키기 등의 게임을 진행하는 한편, 시청자들은 보니가 이길지 하니가 이길지 문자 투표 하는 방식이다. 본 회차 <집안 일은 내게 맡겨>는 1:2로 하니가 승리하였다.



<그림 3-26> 점프슈트를 입은 보니 하니

'집안일'인 돌봄 노동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노동'이며, 인간이 일정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해야하는 '생존 노동'이다. '집안일'을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나, 이를 부모님을 도와주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쉬웠다. 또한 집안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남성MC와 여성MC가 보여준 부분은 아쉽다. 미션 주제가 제시되자 '저는 집안일을 못해요.'라고 보니가 말하는 반면, 하니(여자MC)는 본인의 별명을 '김살림'이라 칭한다. 사실 이 나이의 아이들 중 살림이 익숙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멘트는 살림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재생산한다. 이전과 달리 미션을 수행하는 MC들이 바지로 된 점프슈트를 착용한 부분은 성고정관념에서 일정 부분 탈피한 시도로 여겨진다.

8) 해요와 해요

(1) 프로그램 소개 및 분석 회차

2020년 4월 방영을 시작한 <해요와 해요>는 각 영역별 교육 활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유아 에듀케이터로 출연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요와 해요>는 예술(미술과 노래), 과학, 철학, 영어 등 영역별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평일 오후에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분석 기간동안 ‘해요와 해요’는 요일별로 매일 서로 다른 5개의 영역을 방영하였고, 각 영역별 멘토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⁹⁾

< 표 3-7 > 해요와 해요 일별 프로그램 구성

영역	멘토	프로그램 내용
예술해요	김현정 화가	미술놀이 형식/아이들이 노래배우는 코너
영어해요	카메론	놀이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코너
건강해요	이병국 의사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코너
탐험해요	장이권 교수	주변의 곤충과 동식물 탐험
철학해요	김현 교수	다양한 이야기로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코너

상반기에 방영된 <해요와 해요> 중 5월 4일에 방영된 ‘하늘 동물원’, 5월 14일에 방영된 ‘산개구리의 노래’, 5월 22일에 방영된 ‘소년과 나무-성장’, 5월 26일에 방영된 ‘I can ride a scooter’, 6월 17일에 방영된 ‘건강하게 먹어요’를 분석하였다.

(2) 주요 등장인물 분석

<해요와 해요>에는 5명의 멘토와 무지개 무늬를 지닌 친구인 해요들이 등장한다. 강모모, 양동동, 여재재가 이들이다.

① 해요들과 이들의 특성

몸에 무지개를 지니고 있는 해요들인 각기 다른 상자를 타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이들은 멘토들을 보조하거나 때로는 프로그램 속 서사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각 캐릭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9) <해요와 해요> 시즌 1은 2020. 7월 24일에 종료되었고, 8월 10일부터 시즌 2가 방영되고 있다. 시즌 2에서는 예술해요와 건강해요가 없어지고, 노래해요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영어해요가 수요일, 탐험해요와 철학해요는 시즌1과 같은 날에 방영되고 있다.

- ① 강모모: 무지개 귀를 가진 강아지로 상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사교성이 많고 엉뚱한 질문이 많고 실수가 잦은 먹보이다. 친화력이 좋고 발랄하다. 목소리나 캐릭터의 색을 볼 때 성별을 추정하기 어렵다.
- ② 양동동: 무지개 뿔을 가진 분홍색 염소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느끼는 바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를 즐겨워 한다. 상자 배를 타고 이동하며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한다. 캐릭터의 색과 성우의 목소리에 비춰볼 때 여성으로 추정된다.
- ③ 여재재: 무지개 꼬리가 있는 파란색 여우로 똑똑하고 생각이 많다. 모든 것에 탐구적이고 분석적이다. 우주비행사가 꿈인 여재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생각노트를 지니고 다닌다. 성별은 파악하기 어렵다.



< 그림 3-27 > 무지개 친구 해요들

해요들 사이의 관계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양동동은 강모모와 여재재 사이의 작은 다툼을 준재하거나 배려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고, 돌봄적 사유가 발달한 존재라는 기존의 인식에 머무는 듯 하다.

② 멘토들의 성비 불균형

<해요와 해요>는 영역별 교육 활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멘토를 누가 담당하는가는 해당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시즌 1의 멘토 중 김현정 화가를 제외하면 모두 남성들이다. 이들이 소개되는 과정에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자막으로 수차례 이름 및 직업(박사, 의사 등) 소개되는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김현정 화가에 대한 이름·소개 자막은 등장하지 않았다.¹⁰⁾

10) 예술해요 멘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름을 확인하였다.



< 그림 3-28 > 건강해요의 멘토 이병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예술해요의 멘토 김현정 화가

인물상의 성비 불균형은 시즌 2에 들어서 더욱 심해져서¹¹⁾ 시즌 2의 경우 단 한명의 여성 멘토도 등장하지 않는다. EBS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성비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이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아이들에게 '전문가의 직업을 가질수 있는 것은 남자이구나.'라고 무의식중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 김현정 화가가 이끌어가는 '예술해요'의 경우(5월 4일 '하늘동물원'), <그림 3-28>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멘토와는 다른 모습으로 멘토가 등장한다. 메이크업과 커다란 머리장식과 정성스럽게 땀은 머리, 옷차림 등은 '여성은 예뻐야 한다' 또는 '여성은 꾸며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반영이다. 아름답게 꾸미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화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복을 착용하고 등장하지만, 사실 한복은 예술하는데 편한 옷차림도 아니다. 예쁘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성 멘토들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에 충실할 뿐 멋있게 보이는 꾸밈노동까지 강요받진 않는다.

(2) 주요 회차 분석 ① '소년과 나무-성장', 5월 22일 방영



< 그림 3-29 > 5월 17일 철학해요의 아이들

'철학해요'코너로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던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도 한다. 토론자로 나온 남자아이는 어른이 되면 뭐가 좋든지 공감할 못하겠다고 하고 두 여자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 가운이는 요리를 배우고 조리할 수 있는 불도 다룰 수 있게 되어 좋다고 하고 반대로 남자친구는 어른은 일만하고 아이는 실컷 놀

11) 시즌 1에서 멘토를 담당하던 김현정화가, 이병국의사가 하차하고, 가수 황바울이 새로운 멘토로 등장하였다.

수 있는 점을 아이의 장점으로 들었다. 이에 가운이는 돈도 있고 카드도 있어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점을 어른의 장점으로 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현철학박사는 멘토로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한다. 아이들의 답변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묻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도록 이끌고 있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할만한 주제에 대해 아이들의 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는 그 자체로 반가운 시도로 생각된다. 다만 아이들의 옷차림 등에 있어 일반적인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성편향은 여기서도 반복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듯, 여자 아이들은 치마를 입고 메이크업을 한 얼굴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여아들의 화장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② 'I can ride a scooter', 5월 26일 방영



< 그림 3-30 > I can ride scooter의 등장인물들

스쿠터(킵보드)를 몰고 남자 아이가 등장한 모습을 멋있게 바라본 모모는 캐머런 선생님을 만나 자신이 스쿠터를 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장비를 하고 나타난 캐머런에게 모모는 자전거와 바운스 볼은 타지만 스쿠터(킵보드)를 못 탄다고 고백한다. 자전거, 바운스 볼, 스쿠터등 아이들이 타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하여 영어 표현을 습득한다. 스쿠터를 타는 아이도, 영어 선생님이 캐머런도 모두 남성이다. 스쿠터는 유아들

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기구 중 하나이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구성은 스쿠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야외 놀이는 남자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의 산물로 읽혀진다. 남자 아이 뿐만 아니라 성별에 관계 없이 다수의 아이들이 등장했으면 놀이에 대한 성별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③ '건강하게 먹어요', 6월 17일 방영

'건강해요'방영분으로 배고픈 어재재에게 양동동은 방울토마토를 강모모는 사랑류의 단 것을 내민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재재와 동동의 의견에 모모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이병국 선생님을 만나 단 것의 위험성에

대해 물어본다. 의사 선생님은 단 것은 영양소는 높지 않고 열량이 높아 비만이 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건강돋보기를 통해 고기, 채소, 과일 등을 어떠한 비율로 먹어야 하는지를 그래픽, 돌립판)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이병국 선생님이 아이들에 필요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재료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그림 3-29>) 아이들이 이를 먹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다.



< 그림 3-31 > 아이들이 먹을 영양 가득한 간식을 요리하는 이병국 교수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 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장치(예를 들면 노래, 돌립판, 쿡트 등)를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수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성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만드는 부분은 흔히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요리를 남성 역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필수 노동은 특정 성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노동임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IV. 나가며

본 보고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EBS 영유아 대상 스튜디오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여파로 가정 보육의 시간이 늘어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각 가정에서 EBS 제공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 커져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질적 분석(8편의 프로그램)과 양적 분석(8편의 프로그램)을 통해 EBS의 간판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성별 불균형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다. 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성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남성 중심성은 캐릭터별 위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그 양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및 코너에서 멘토/선생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 게스트로 등장하는 인물의 성편향성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질적 내용분석의 결과, 때로는 전통적인 성별 스테레오 타입이나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 의식에 머무는 사례들이 많았다. 여성혐오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출연자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직업, 성격,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장인물들의 외양(옷차림 메이크업)에서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성편향은 나타났다. 군무를 위해 등장한 아이들, 아이들의 놀이를 진행하는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여자 아이들은 '꾸밈'을 강요받는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캐릭터의 설정 및 프로그램 서사가 갖는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 속 인물들-남성적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여성적 분야에서 일하는 남성-을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통적인 유아 콘텐츠가 지닌 성차별적인 요소에 대해 성찰하고, 때로는 '원작 비틀기'의 방식으로 이에 도전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여년 전과 비교할 때, 영유아 대상 미디어 콘텐츠에도 변화의 바람이 조금이나마 불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긍정적 신호이다.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성별

불평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질문은 부재한 채, 단순한 역할 바꾸기에 머물거나 성에 관계 없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는 이야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이 운동장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일상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아이와 부모들의 젠더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민주 사회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어린 시절 시청한 미디어 콘텐츠는 장기적이면서도 누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10년대 중반이후 페미니즘의 부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EBS는 2019년 12월에 있었던 ‘생방송 보니하니’의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논란을 겪으면서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과 제작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성평등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4-1 > EBS 제작 가이드라인 중 성평등 부분(58쪽)

1. 다양한 성(性) 정체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특정한 성(性)적 지향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정한 성(性) 정체성을 다른 성(性) 정체성보다 열등하거나 우등하게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性) 정체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도록 한다.

< 그림 4-2 > EBS 제작 가이드라인 중 유아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보호관련 조항

1. 다양한 성(性) 정체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특정한 성(性)적 지향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정한 성(性) 정체성을 다른 성(性) 정체성보다 열등하거나 우등하게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性) 정체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도록 한다.

*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본론에서 논의하였듯이 2020년 상반기에 방영된 EBS의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이드라인이 실행되지 않은 원인은 여러 수준에서 지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성적 편향’,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불평등한 젠더 체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 내용의 성인지 감수성이 고양될 수 있다. 젠더, 성적 지향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기계적인 변화-남녀의 역할/위치 바꾸기 등에 머물거나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치환된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남성중심적인 성/젠더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성차별적인 등장인물의 설정 및 이야기/서사구조를 넘어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 통념을 넘어 다양한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소개될 때 가능한 일이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언론사 조직 내적으로 그리고 조직 외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BS는 1차적으로는 제작진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조직 내의 여성인력 또한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일선 현장의 제작진들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배포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EBS에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마련,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과 아동용 프로그램에서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EBS의 외부 감시 체제인 시청자 위원회에 젠더 문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식있는 제작자라고 하더라도, 성인지적인 영유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성차별적인 젠더 인식에 도전하는 영유아 콘텐츠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EBS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스튜디오 제작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영유아 교육 콘텐츠가 많아져야 한다. 제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은 성인지적인 프로그램 제작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성평등한 영유아 콘텐츠의 풀을 넓히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진흥원,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관에서 성인지적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작할 수 있는 여러 재원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